
第20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6月19日(火) 午後2時 開式

第20回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議事擔當官 盧秀晚)</

(14時 12分 開式)

○議事擔當官 盧秀晚; 지금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李容富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李容富; 존경하는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27회 임시회 이후 약 20여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0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고 농사지을 물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리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내린 단비는 참으로 고맙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민·관·군이 힘을 모아 가뭄극복을 위한 모금활동에 적극 나섰고, 레미콘차량까지 동원하여 물을 나르고 군장병들도 부대에서 물을 실어와 팔을 걷어붙이고 논밭에 물을 대는 장면을 통해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가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 건물에 가뭄극복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끝에 장마란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봄에 이토록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장마철에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수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해 없이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그 동안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재해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확인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흥분과 기대를 가져왔던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보다 성숙된 관계가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계속됩니다. 이 기간 중 시정질문과 2000년도 결산 승인 그리고 조례안과 시교육청의 추경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체감한 시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아냄으로써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시정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는 무엇보다도 총 14조 7,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 결산승인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심사와 승인에 비해 결산의 심사나 그 승인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의 방향은 사전 재정계획 차원의 예산뿐만 아니라 사후 예산집행차원의 결산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는 소위 평가행정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과연 계획한 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의도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였는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양과 질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디지털사회, IT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실상황에서 근원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한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도시간의 교류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국제 도시의회간의 교류활동에 관하여 언론, 매스컴 등의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결과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홍보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는 우리 의회의 협조와 후원 아래 40명의 카자흐스탄 우리 한인동포들이 우리 문화와 한글교육을 받고 있

습니다.

일제시대의 압제를 피하고 국가독립을 위하여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한인동포인 고려인들은 지금부터 64년 전에 스탈린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갖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과 근면성으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번 8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 우리 한국의 친선우호 협력 증진에 첨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조그마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 시의회와 국제 도시의회간의 교류활동이 내실을 다지고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와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의 방문일정 등 교류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내실을 기하고 국제도시와 국제도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개개인의 주체적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인간상과 21세기 초인류 국가시대에 실력 있는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완성은 물론 주위와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시

스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물질만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가슴도 따뜻한 사회, 나누어 가질 줄 아는 건강한 사회를 우리 모두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열흘 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20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층 방청석에 카자흐스탄 한인동포가 지금 많이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盧秀晚; 이상으로 제20회 서울特別市議會 定例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26分 閉式)